

지명 ‘鳴梁’과 ‘露梁’의 어원 고찰

김진식
(충북대학교)

I. 서론

지명은, 고유어 지명이든 한자어 지명이든, 대체적으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이루어진다. 전부요소는 후부요소를 수식하면서 지명의 명명 유연성을 나타내고, 후부요소는 지명의 근간이 되면서 지명의 갈래, 즉 지명의 지시 대상을 나타낸다. 예컨대, ‘鳴梁’과 ‘露梁’에서 전부요소 ‘鳴’과 ‘露’는 지명의 명명 유연성을 나타내고, 후부요소 ‘梁’은 지명의 지시 대상을 나타낸다.

이순신의 『亂中日記』에는 ‘梁’이 후부요소로 붙은 지명이 여러 개 보인다.¹⁾ 沙梁[임진년. 2. 24.]은 전남 고흥군 영남면과 포두면 사이에 있는 海倉灣을 말하고, 露梁[임진년. 5. 29.]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사이의 해협을 가리킨다. 鑿浦梁[임진년. 6. 4.]은 경남 통영시 도천동 당동 마을과 미수2동[미륵도 내] 사이의 해협이며, 見乃梁[임진년. 8. 26.]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사이의 해협이다. 漆川梁[계사년. 2. 24.]은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일대와 장목면 장목리 사이의 해협이고, 赤梁[계사년. 5. 16.]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앞의灣을 말한다. 馬梁[갑오년. 6. 20.]은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이나, 효종 7년(1656)에 藍浦縣[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있던 馬梁鎭을 이곳에 옮겨와 마량진

* 이 논문은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nt in 2006.)

1) 본 논문에서는 후부요소 ‘梁’이 붙은 지명을 편의상 ‘梁’자 지명으로 지칭한다.

또는 마량으로 불렸으므로, 보령시 남포면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仇羅梁(병신년. 8. 29.)은 경남 사천시 대방동과 녹도동 사이에 있는 해협이며, 鳴梁(정유년. 9. 16.)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사이의 해협이다.²⁾

이상 『난중일기』에 보이는 ‘梁’자 지명의 지리적 특징은 海峽이나 灣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협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수역으로, 水路·水道·목項이라고도 한다. 육지가 단층 운동이나 요곡 침강 등에 의해 바다 속에 잠겨서 생긴 해협은 깊는데, 넓은 육지가 바다 속에 잠김으로써 저지나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생긴 해협은 얕다. 이 중 우리의 예는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해협은 일반적으로 潮差로 인해 조류가 빠르고 流速이나 流向이 변하기 쉬우며 渦流가 생기는 일이 많다. 만은 바다가 육지로 파고 들어간 곳을 말한다. 후미진 海面을 이루고 있으며, 外洋으로부터 육지 안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소규모인 것은 물결이 잔잔하여 풍랑 대피항 또는 항만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 많다.

『난중일기』의 기록을 검토해 볼 때, 충무공은 이런 지리적 특징을 지닌 곳을 宿營地로 이용하거나 勝利處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지형지물을 심분 활용하여 전투를 수행한 智將다운 전략이다.

본 연구는 먼저 후부요소 ‘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 전부요소 ‘鳴’과 ‘露’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鳴梁’과 ‘露梁’의 어원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후부요소 ‘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문헌과 지명 예를 통해 ‘梁’의 새김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 연후에 이 새김을 가지고 다시 문헌과 지명 예에서 그 의미를 천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상이란 심리 기제를 통해 ‘梁’이 轉意되는 과정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전부요소 ‘鳴’과 ‘露’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전해지는 지명 유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2) 이들 ‘梁’자 지명의 현 위치를 일일이 제시한 것은 ‘梁’자 지명의 지리적 특징을 파악하여, 그 의미 해석에 도움을 얻고자 함이다.

II. 후부요소 ‘梁’

2.1. ‘梁’의 새김

‘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梁’의 새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문헌을 통해 ‘梁’의 새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명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다.

2.1.1. 문헌

일찍이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는 ‘梁’의 새김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辰韓(亦作秦韓)

又崔致遠云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 云沙涿漸涿等 [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三國遺事』 卷第一 「辰韓」)

新羅始祖 赫居世王

二曰突山高墟村 長曰蘇伐都利 初降于兄山 是爲沙梁部[梁讀云道 或作涿亦音道]鄭氏祖 今曰南山部 仇良伐麻等烏道北廻德等南村屬焉[稱今日者 太祖所置也 下例知](『三國遺事』 卷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嶺山郡 祗味王時 伐取押梁[一作督]小國 置郡 景德王改名 今嶺山郡(『三國史記』 卷第三十四 雜誌 第三 地理 一)

『삼국유사』는 최치원의 말을 인용하여, 진한의 읍과 마을이 ‘沙涿’ 또는 ‘漸涿’임을 전하고 있다. 또한 ‘沙涿’을 ‘沙梁’이라고도 하는데, 신라인 방언으로는 ‘涿’의 음이 ‘道’이기 때문에, 이 ‘沙梁’을 ‘沙道’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古墟村長 蘇伐都利가 兄山에 내려와 沙梁部 鄭氏의 조상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梁’은 ‘涿’이라고 쓰며 ‘梁’이나 ‘涿’의 새김은 ‘道’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삼국사기』는 ‘梁’이 ‘擘’으로 읽힐 수 있음도 말하고 있다. 고려 때 章山郡[현 慶山市]은 신라 경덕왕 때에는 獐山郡이었는데, 이는 押梁小國을 별칭하여 이룬 郡이다. 여기서 押梁小國은 달리 押擘小國으로도 불렸다 하니, ‘梁’이 ‘擘’으로 읽혔음을 시사한다.

이상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梁’은 ‘涿’과 통용되고, 이들의 새김은 ‘도’ 또는 ‘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梁’의 새김은 ‘도’ 또는 ‘독’ 외에 ‘돌이였음도 타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承休因獻策曰 待賊半過窄梁 遺精銳橫斷賊船 堅守江都 則前者勢孤 後者失據 前後不相應 賊可以破(『高麗史』 卷第一〇六 「李承休」)

又入窄梁 : 손·돌焚戰艦五十餘艘海明如晝 死者千餘人 萬戶孫光裕 中流矢僅免 京城大震 窄側伯切狹也 窄梁在今江華府南三十里許 中去聲 飛矢曰流(『龍飛御天歌』 6. 49)

孫玆項在廣城津上 石嶼多露 舡路極險 越邊通津境 臨水有崗 上有孫玆塚 過者以澆祭以求利涉焉(『輿地圖書』 「江華府 古蹟」)

二十日 每年有大寒風 謂之孫石風 盖麗王由海路入江華 舡人孫石進舟入一險口 麗王疑怒命斬之 未幾脫險 至今稱其處曰孫石項 孫石之被害卽是日而怨者使然也(『東國歲時記』 十月)

江華海中有險礁 曰孫石項 方言謂山水險隘處謂項 嘗有梢工孫石者 以十月二十日 冤死于此 遂以名(『洌陽歲時記』 十月 二十日)

『高麗史』에는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들을 토벌할 방책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李承休는 元宗에게 올린 방책에서, 적들이 江都에 있는 窄梁

을 지날 때 토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 건의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고려사』에 보이는 ‘狹梁’이 바로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손·돌’이다. 『용비어천가』의 기록에서, 강화부 남쪽 30리쯤에 있다는 위치가 이를 말해준다. ‘손돌’은 이후 『輿地圖書』에는 ‘孫石項’으로,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에는 ‘孫石項’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강화도 지명이라는 사실에서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때 ‘孫石項’이나 ‘孫石項’은 표기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손돌목’을 뜻하는 말이다. 이 ‘손돌목’은 『고려사』와 『용비어천가』의 ‘손돌’에 ‘목’이 더 붙은 어형이다. 그리고 이들 기록은 한결같이 地名 ‘손돌목’이나 風名 ‘손돌바람’의 어원을 뱃사공 손돌[孫石·孫石]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과 관련시키고 있다.³⁾

이상에서 우리는 ‘梁’의 새김이 ‘돌’임을 알 수 있다. ‘梁’의 새김이 ‘돌’임은 『訓蒙字會』 또한 마찬가지이다.

梁·돌량 水橋也 又水堰也 又石絕水爲梁(『訓蒙字會』 初刊本 上 2)

『훈몽자회』는 ‘梁’이 ‘·돌’로 읽힘과 함께, 이 ‘·돌’이 ‘다리’·‘방죽’·‘돌다리[징검다리]’ 등 여러 뜻으로 쓰일 수 있음도 함께 말하고 있다. 그런데 ‘梁’의 새김 ‘·돌’은 본래 ‘ㅎ’말음을 가진 것이었던 바, 이는 『杜詩諺解』에서 ‘·돌’의 처격형 쓰임을 통해 알 수 있다.

늘개 물외노라 고기 잡는 돌해 ㄹ득ㅎ얏도다[曬翅滿魚梁](『杜詩諺解』 7. 5)

이상 우리는 여러 문헌을 통해 ‘梁’의 새김이 ‘·돌ㅎ’이었고, 이 ‘돌’은 ‘도’ 또는 ‘독’과 교체될 수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 ‘梁’의 새김 중 ‘·돌ㅎ’과 ‘독’의 교체는 ‘石’의 새김 중 ‘·돌ㅎ’과 ‘독’이 교체되는 모습과 같다. ‘石’의 중세국어 새김은 ‘·돌ㅎ’으로 ‘梁’의 새김과 성조에서만 차이가 있다. 백제어에서 ‘石’의 새김은 ‘珍惡(*돌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石山縣本百濟珍

3) 지명 ‘손돌/손돌목’의 어원에 대해서는 2.1.2.에서 자세히 다룬다.

惡山縣], 이 ‘*돌악’은 현대 중부 이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독’과 같은 어형이다(이기문 2001: 48; 도수희 2005: 522~523). 고대국어 단계에서 ‘石’의 새김과 마찬가지로, ‘梁’의 새김 또한 ‘·돌ㅎ’과 ‘독’이 교체되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⁴⁾

2.1.2. 지명

남해나 서해에서 발견되는 많은 지명 중 ‘梁’의 새김 ‘돌/도’와 관련된 예가 많아, ‘梁’의 새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峯梁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사이의 좁은 해협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돌’과 대응되는데, ‘손돌’의 어원에 대해서는 뱃사공 손돌[孫覿·孫石], 萬戶 孫光裕, 강화부의 巽方과 관련된 설이 있어 왔다.⁵⁾ 그러나 이는 형용사 ‘술다’의 관형형에 ‘돌’이 붙어 이루어진 지명으로, ‘좁은 물목’을 가리킨다(이기문 1998). ‘술다’는 ‘넓이나 폭이 좁다’라는 뜻으로, ‘바지통이 술다’나 ‘저고리 품이 술다’처럼 현대국어에서 실제로 쓰이는 단어이다. 『용비어천가』에 상성 ‘:손’으로 나타나는데, 현대국어 ‘술다’ 또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 ‘손돌’이 ‘좁은 물목’을 가리키는 데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난중일기』의 ‘梁’자 지명 중 露梁·鳴梁에는 ‘돌’이, 鑿浦梁·見乃梁·漆川梁에는 ‘도’가 대응되고 있다. 진주만과 광양만·여수만을 이어주는 露梁은 달리 ‘노돌’로도 불리는데, 이는 ‘노돌’에서 와전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4) ‘梁’의 새김 ‘·돌ㅎ’은 현대국어 지명에서 ‘돌’로 나타나므로, 이후 논의에서는 ‘돌’로 표기한다.

5) 기록에 따르면 ‘손돌/손돌목’의 어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輿地圖書』 江華府 古蹟·『東國歲時記』 十月·『溟陽歲時記』 十月 二十日の 기록대로 舟師[왕을 모신 뱃사공] 손돌[孫覿·孫石]과 관련된 설이요, 둘째는 『大東地志』 江華 山水의 기록대로 萬戶 孫光裕와 관련된 설이며, 셋째는 『여지도서』 江華府 山水의 기록대로 강화부의 巽方과 관련된 설이다. 이영수(1996)는 현지 조사와 구전 채록된 전설을 통해 舟師 손돌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의 지리적 특성이 다른 '梁'자 지명의 지형과 같고, '梁'의 새김이 '돌'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서남쪽 끝에서 서해와 남해를 이어주는 鳴梁은 급류가 암초에 부딪혀 튀겨나오는 울음 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린다 하여 달리 '울돌목'으로도 불린다.

靄浦梁 또는 靄梁은 조선 전기에 불린 이름으로, 조선 후기에는 掘梁으로 불렸다.⁶⁾ 이곳은 달리 '판데'·'폰데'로 불리는데, 원래는 육지와 이어져 있던 곳이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에 開靄된 것으로 추정된다.⁷⁾ 여기서 '착포량'에

-
- 6) 『亂中日記』·『唐浦破倭兵狀』에는 靄浦梁·靄梁으로, 『李忠武公全書』·『固城邑誌』·『固城府邑誌』·『統營志』·『鐵城誌』 등에는 掘梁으로 표기되어 있다.
- 7) 김정우(2004: 5~8)는 '靄梁'을 開靄과 무관한 지명으로 보고, '손돌(좁은 목)'을 뜻하는 '窄梁'의 와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착포량은 임진왜란 이전에 개착된 곳으로, 교통과 풍수지리상의 이유로 고종 33년(1896)까지 세 차례나 메우고 파기를 반복하였다. 영조 35년(1759)에 통제사 吳燮이 첫 번째 메운 것을 이듬해(1760) 통제사 李泰祥이 다시 파고 掘梁橋란 나무다리를 개설하였다. 이때부터 이곳을 靄浦梁 또는 靄梁 대신 掘梁으로 부르게 되었다. 순조 11년(1811) 통제사 吳載光이 두 번째 메워서 육로로 이었다가, 순조 13년(1813) 통제사 趙啓가 다시 파서 굴량교를 가설하였다. 고종 32년(1895)고 통제사 洪南周가 세 번째 메워 육로로 이었으나, 1896년 주민들이 다시 파고 굴량교를 가설하였다. 고종 33년(1896)에 마지막으로 가설된 굴량교는 1907년 보수되었는데, 이 다리는 총연장 9.1m·교폭 3.6m·최대 간조 수심 60cm 규모였다. 당시 다리 밑으로는 약 15m 이하의 배만 겨우 왕래하였다. 그 후 1915년 독지가 金三柱(1849~1925)가 靄梁橋란 돌다리를 개설하였는데, 길이 13m·교폭 2.5m 규모였다. 일제 강점 초기 부산항과 여수항을 운행하는 汽船이 미륵도 남쪽 해역을 돌아 바깥 바다로 우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928년~1932년에 판데목을 넓혀 統營運河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는데, 총연장 1420m·하저폭 42~55m·최대 간조 수심 3m의 규모였다. 또한 1927년~1932년에는 통영시 도천동 堂洞 마을과 미륵도 북단 통영시 美修二洞 해안을 가로지르는 해저터널을 완성하여 일제 때에는 統營太閣堀海底道路·海底道路로 불리다가, 광복 후에는 海底 tunnel 또는 폰데굴로 불린다. 이 터널은 총연장 477.5m[1996년 실측 총연장 483m]·폭 5m·높이 3.5m의 규모이다. 굴량교 또는 착량교가 있던 자리에는 1963년~1967년에 忠武橋를 가설되었는데, 이 다리는 총연장 152m·교폭 10m·높이 18m의 규모였다. 20세기에 들어 미륵도가 관광지로 개발되고 주거 인구가 증가하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4년~1998년 통영운하 서쪽 입구 지점에 統營大橋를 가설하였는데, 이 다리는 총연장 591m·교폭

대응되는 ‘판데’·‘폰데’에서의 ‘데’는 ‘도’의 외전형으로 추정된다. 옛날 통영 성내로 시집은 ‘착랑택’을 속칭 ‘판돛택’으로 부르고 있음이 이를 시사한다 (김일룡 2002: 13).

見乃梁은 달리 ‘전하도’로도 불리는데, 이는 고려 의종 24년(1170) 鄭仲夫의 庚寅亂으로 왕이 거제도도 추방되어 오면서 건넜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 전한다. 이런 전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梁’에 ‘도’가 대응됨은 확실하다.⁸⁾ 『난중일기』에 나오는 지명은 아니나, 이밖에도 해협과 관련된 많은 지명에서 ‘도’를 확인할 수 있다.⁹⁾

진두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본도] 陣頭(津頭) 마을과 추봉리[추봉도] 봉암 마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한다. 이곳은 150m 정도의 좁은 해협으로, 2007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다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두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수군이 진을 치고 경비 초소를 두어 통제영과의 연락 보급과 담당 구역의 해상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곳이며[陣頭], 또한 예부터 한산 본도와 추봉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연결하는 나루터[津頭]의 구실을 해 왔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옷바우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의 衣岩[옷바우] 마을과 용호리[용초도] 龍草 마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한다. ‘의암’은 임진왜란 때 한산도에 주둔한 우리 수군들이 군복을 짓고 수선하여 옷바우에 널어 말렸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 마을에서 용초 마을까지의 700m 정도의 해협이 ‘옷바우도’이다.

20.7m의 규모이다(김일룡 2002).

- 8) 漆川梁에도 ‘대문도’가 대응되나, 이는 2.2.2.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9) 아래 예들은 다음 분들이 증언해 준 것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김일룡 : 통영시향토역사관장, 박양모 : 하소리 의암 이장, 김정동 : 매죽리 이장

정남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호두 마을과 매죽리 죽도 마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한다. 강한 조류가 정남향으로 흘러 붙은 이름이다.

청당이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용초 마을과 비진리[비진도] 내항 마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을 말한다. 비진도를 청당이라고도 일컫는다.

설피이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의 대매물도와 소매물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한다. 대매물도에서 소매물도 쪽으로 돌출된 곳을 '설피이치'라 부르고, 이 설피이치와 소매물도 사이의 600m 정도의 해협을 '설피이도'라 부른다.

자래목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연대[연대도] 마을과 만지[만지도] 마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한다. 연대도는 지형이 자래[자라]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

중구리도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미동·달아 마을과 저림리 송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한다.

이상 우리는 『난중일기』의 지명이나 기타 지명에서 '梁'의 새김이 '돌/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도'의 의미 파악에도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2. '돌/도'의 의미

우선 문헌을 통해 '돌/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지명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다.

2.2.1. 문헌

‘돌/도’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보인다.

斯多舍

及抵其國界 請於元帥 領聽下兵 先入旃檀梁[旃檀梁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 其國人不意兵猝至 驚動不能禦 大兵乘之 遂滅其國(『三國史記』 卷第四十四)

신라 화랑 斯多舍는 眞興王에게 청하여 異斯夫가 가라국을 공격할 때 비장으로 참전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먼저 가라국의 땅 旃檀梁을 공격하여 결국 가라국을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기록에 따르면, ‘旃檀梁’은 城門 이름인데, 가라국의 말로 ‘門’을 ‘梁’이라 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梁’의 새김은 ‘돌/도’이니, ‘돌/도’는 ‘門’을 뜻하는 말로 일단 생각할 수 있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이기문(2001: 49)은 ‘梁’을 ‘돌’로 재구하면서, 만주어 ‘duka(門)’나 고대일본어 ‘to(戶)’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¹¹⁾

‘돌/도’로 읽히는 ‘梁’이 사전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풀이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2004)의 『漢韓大辭典』에 따르면, ‘梁’자는 다음과 같이 19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10) ‘돌’이 ‘門’의 뜻이라면, 현대국어에서 ‘돌쩌귀’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돌쩌귀’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로, 암쪽은 문설주에, 수쪽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방언에 따라서는 ‘돌짝’·‘돌쩌구’·‘돌쪽’·‘돌쪼구’·‘돌쪼기’·‘돌쩌개’ 등으로 실현된다.

11) 양주동(1983: 89)은 『眞興王碑』와 『日本書紀』에 ‘沙梁’이 ‘沙喙(사달)’로 記寫되었음을 들어 ‘沙梁’을 ‘새도’로 재구하면서, ‘새도’를 ‘새터[新基]’의 뜻으로 풀이한다.

한편 김진우(1988: 718)는 ‘梁’을 ‘돌’로 재구하고 ‘門’의 뜻으로 풀되, 가라국과 인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인도어 ‘dwar’과 관련시키고 있다.

“Now, the *hun*(訓 pronunciation) for the letter *lyang*(梁) is *do*(cf. “dol-lyang”, *Hunmong chahoe*, vol. 1, book 5), and the Sanskrit word for ‘door, gate’ is *dwar*.”

① 다리, 교량 ② 다리를 놓다, 교량을 가설하다 ③ 魚梁 ④ 제방, 방축
 ⑤ 들보 ⑥ 上引枋 ⑦ 등줄지긋대산등성이처럼 물체나 신체에서 솟거나
 弧를 이루는 부분 ⑧ 冠의 앞이마 쪽에서 뒤쪽으로 둥글게 넘어가는 부분
 에 세로로 잡힌 골. 官等에 따라 골 수가 다르다. ⑨ 조의 일종. 梁과 통용
 ⑩ 약탈하다. 掠과 통용 ⑪ 억세다 ⑫ 성실하다. 諒과 통용 ⑬ 어지럽게
 널리다 ⑭ 州 이름. 九州의 하나→ 梁州 ⑮ 산 이름→ 梁山 ⑯ 땅 이름.
 춘추시대 周 나라의 고을로서 뒤에 楚 나라에 편입되었다 ⑰ 나라 이름.
 ㉑ 周 나라 때의 제후국 ㉒ 전국시대 七雄의 하나인 魏 나라 ㉓ 隋 나라
 말에 梁師都가 朔方郡을 점거하고 세운 나라. 唐 나라에게 멸망되었다 ㉔
 수 나라 말에 蕭銑이 巴陵을 점거하고 세운 나라. 당 나라에게 멸망되었
 다 ㉕ 수 나라 말에 吳興太守 沈法興이 毗陵을 점거하고 세운 나라. 당
 나라에게 멸망되었다 ⑱ 朝代 이름. ㉖ 南朝의 하나. 蕭衍이 세웠다(502~
 557) ㉗ 五代的 하나. 朱溫이 세웠다(907~923) ⑲ 姓

여기서 ‘門’과 통할 수 있는 뜻은 ‘⑥ 上引枋’이다. ‘引枋’은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문이나 창 아래나 위로 가로지르는 나무’를 뜻한다. 인방은 上
 引枋과 下引枋으로 되어 있는데, 창이나 문짝의 상부에 가로지르는 인방을
 ‘상인방’ 또는 ‘윗중방’으로, 하부에 가로지르는 인방을 ‘하인방’ 또는 ‘아랫중
 방’으로 부른다.

중국에서도 ‘門’과 ‘梁’이 통해 쓰이는 예가 있다. ‘上引枋’을 ‘門楣
 [ménmèi]’라고 하는데, 이는 ‘過梁[guòliáng]’ 또는 ‘梁暗[liáng'àn]’과 통용된
 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1453).

2.2.2. 지명

‘돌/도’가 ‘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명을 우리는 남해안에서 몇 예 발
 견할 수 있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 서쪽으로 붙어 있는 해안 마을이
 松門里이다. 이곳은 본래 곤양군 서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小松·水門·彌法을 병합되어 이루어진 마을이다. 당시 小松의
 ‘松’과 水門의 ‘門’을 따서 ‘松門里’라 하여 하동군 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에 하동군 금남면에 편입되어 현재 小松·水門·彌法·新基의 4개 행정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露梁에 바로 붙은 마을이 ‘水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水門

지형상 산으로 가리어 숨어있는 마을 같아서 수문동리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또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 마을을 출입하였으므로 바다 쪽이 마을의 문이라 하여 수문이라 하였다. 옛날 옹기점이 있어 옹기점으로도 불렸는데, 소송에 새로운 옹기점이 생기게 되자 수문을 큰옹기점[구옹기점]으로, 소송을 작은옹기점[새옹기점]으로 불렀다.(하동문화원 1999: 365~367)

위 설명에 따르면, ‘水門’은 ‘숨어있는 마을’이나 ‘큰 바다의 문에 해당하는 마을’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있는 바, 전자보다 후자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梁’과 관련하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노량 해협에 붙어 있는 마을이 ‘水門’이라는 데서 우리는 ‘梁’과 ‘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칠천량은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유계리·하청리·실전리·연구리·어은리와 장목면 장목리 사이의 해협이다. 일명 ‘대문도’로도 불리는데, 이는 이 해협을 대문으로 보고 붙인 이름이다. 이런 사실은 경남일보 이일균 기자의 다음 기사에서도 확인된다.¹²⁾

경남의 해안선 (7) 거제(하) -미친 봄날, 파도 소리는 푸르렀다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임진왜란 때의 대표적인 해전 패전 지역이다. 감옥에 갇힌 이순신을 대신해 전쟁에 나선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은 이곳에서 거북선과 판옥선 130척을 잃고 전사했다. 칠천량해전[1597. 7. 15.]의 전장은 칠천량에서 장목 송진포 앞 바다까지로, 연구리 금곡 마을 앞 대문도를 전초기지로 삼았다. 대문도는 섬이 아니다. 칠천도의 금곡과 하청면 사이의 운하처럼 뚫린 바다 지형을 말한다.(경남일보, 2006. 4. 22.)

12) 기사 내용은 뜻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을 약간 바꾸었다.

이 기사에서도 ‘대문도’가 섬이 아닌, 칠천량을 달리 부르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이 대문도의 초입을 ‘대문아구지’[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화전산 아래 땅끝과 덕곡리 천마산 사이]로 부른다(거제문화원 2004: 287).¹³⁾

칠천량 자체를 ‘대문도’로 부르는 외에 칠천량의 항구인 長木港[장목리] 또한 예전에는 ‘長門浦’로 불렸다.

長木港

고려 현종 3년(1012)에 岐城縣의 長門浦로 불렸고, 특수행정령의 공동체인 부곡제도에 따라 河淸部曲에 속하였다. 長門浦는 長木灣이 깊숙이 들어와 대문 같아 붙은 이름이다. 조선 성종 원년(1470) 巨濟縣에 7鎮을 두었는데, 長木浦鎮은 이 중의 하나이다. 이때부터 長木이란 지명이 처음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장목포진의 鎮營舍에서 통제사 이순신이 전략을 숙의하였는데, 진영사는 1979년 지방유형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되었다. 영조 45년(1769) 방리 개편으로 長木里란 이름으로 河淸面에 포함되었다가, 융희 3년(1909) 長木面이 신설되면서 장목면에 속하게 되었다. (거제시청 <http://www.geoje.go.kr/>)

‘장목항’은 고려 현종 3년(1012)부터 ‘장문포’로 불렸는데, 이는 장목만이 깊숙이 들어와 대문 같아 붙은 이름이다. ‘장목항’은 조선 성종 원년(1470)부터 불린 이름으로, 현재 장목리 장목초등학교 부근에 있다. 이상 칠천량과 대문도의 대응, 칠천량의 한 항구인 장문포의 존재에서 우리는 ‘梁’과 ‘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명량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녹진리 사이의 해협이다. 여기서 ‘門內面’이라는 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門內面

본시 백제 黃述縣의 한 지역으로, 통일신라에는 陽武郡[康津]에 딸린

13) ‘아구지’는 경상방언으로 ‘아가리·입’을 가리킨다.

黃原縣[百濟 黃述縣]의 땅이었으며, 高麗에는 靈岩에 속한 黃原郡의 땅이었는데 세종 30년(1848)에 海南縣의 땅이 되었다. 여기에 全羅水營의 本營이 설치된 것은 세종 22년(1440)의 일이다. 세종 14년(1432) 大掘浦에 있던 處置使營이 현재의 木浦로 옮겨지고 목포에 있던 병선들이 黃原의 周梁[지금의 右水營]에 옮겨지면서 이곳에 木浦萬戶를 두었다.

목포로 옮긴 大掘浦水營은 다음해부터 점차 그 본영을 黃原으로 이동시키는 가운데, 세종 21년(1439)에는 목포에 萬戶鎭을 개설하고, 드디어 그 다음해에 본영을 완전히 周梁에 이동시켰다. 周梁의 전라수영이 右水營[全羅右道水軍節度使營]으로 된 것은 성종 10년(1479)부터의 일로, 전라도 서남해안이 너무 광범위하여 취해진 이 조치로 현재의 麗水에 또 하나의 수영이 개설되어 左水營이 되었다.

門內面의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우수영이 혁파된 고종 32년(1895)이며, 그 이전에는 黃一面과 黃二面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해에 海南縣 또한 海南郡이 되었고, 海南군에 편입된 문내면은 34개 동리를 관할했는데, 1914년의 군면 폐합으로 場西面의 방하리 일부를 합하여 모두 12개리로 개편 관할하기에 이르렀다.(海南郡 1987: 736~737)

위 기록에 따르면, ‘문내면’으로 불린 시기는 高宗 32(1895)으로,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시기에 관계없이 명명 유연성이 예상롭지 않다. 이 또한 명량해협을 문으로 보고 이에 연한 면이라서 붙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梁’과 ‘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2.3. ‘돌/도’의 전의 과정

인간은 어떠한 사물·사항·관념 등에 대해 명명할 때,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聯想(association)이란 심리 기제를 작용하는데, 이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것을 볼 때 그것들과 관련이 되는 말이나 일이 머리에 떠오르게 됨을 말한다. 연상은 서로 대비되는 두 개의 사물·사항·관념들 사이에 隣接性(contiguity)이나 類似性(similarity)이 있을 때 일어난다.

池上嘉彦(1975: 239~242)은 유사성에 의한 연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홍사만 118~119).

$$L \begin{cases} a & \text{(i)} \\ a \cdot c \approx b \cdot c' & \text{(ii)} \\ b & \text{(iii)} \end{cases}$$

L은 어휘소를 가리키며, a와 b는 L이 가진 의미 특징을 말한다. (ii)에서 기호 \approx 은 관계면에서의 평행을 뜻하는데, 이러한 평행은 c와 c'의 의미 특징에 의해 성립된다. 즉 c와 c' 사이에 심리적으로 유사성이 존재할 때, L은 a로부터 b로 轉意된다. 따라서 c와 c'는 전의의 매개체가 된다.

$$\text{FATHER} \begin{cases} \text{父親} & \text{(i)} \\ \text{父親} \cdot \text{가족을 돌봄} \approx \text{神父} \cdot \text{신자를 돌봄} & \text{(ii)} \\ \text{神父} & \text{(iii)} \end{cases}$$

어휘소 FATHER는 본래 '父親'을 가리키던 것인데 (i), 父親의 의미 특징인 '가족을 돌봄'은 神父의 의미 특징인 '신자를 돌봄'과 심리적으로 유사하다(ii). 따라서 이 둘의 유사성에 의해 연상이 성립되어 결국 (iii)에서 '神父'로 전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 의한 연상은 주로 형태·기능·속성 등이 고리가 되어 일어난다.

門은 구획의 경계에 설치한 출입구이다. 담·울타리·벽에는 통행을 위해 開口部가 있게 마련인데, 문은 필요에 따라 차단하고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한 개구부이다. 즉 담·울타리·벽의 안쪽인 집 안이라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바깥쪽인 집 밖이라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이어주는 구조물이다.

海峽은 육지 사이에 끼어서 양쪽 넓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바다이다. 형태면에서 육지 사이에 끼어 한쪽으로부터 통하게 되어 있으며, 기능면에서 양쪽의 넓은 바다를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門'의 의미인 '돌/도'가 '海峽'을 뜻하는 지명에 전의되는 과정은 유사성

에 의한 연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돌/도	{	門 門 · 구조물에서의 開口部임 ≈ 海峽 · 바다에서의 開口部임 海峽	(i) (ii) (iii)
-----	---	--	----------------------

돌/도	{	門 門 · 집 안팎을 이어줌 ≈ 海峽 · 두 바다를 이어줌 海峽	(i) (ii) (iii)
-----	---	---	----------------------

어휘소 ‘돌/도’는 본래 ‘門’을 가리키던 것인데(i), 門의 의미 특징인 ‘구조물에서의 開口部임 · 집 안팎을 이어줌’은 海峽의 의미 특징인 ‘바다에서의 開口部임 · 두 바다를 이어줌’과 심리적으로 유사하다(ii). 따라서 이 둘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되어 연상이 성립되고, 결국 (iii)에서 ‘海峽’으로 전의된 것이다.¹⁴⁾

서로 대비되는 두 개의 사물 · 사항 · 관념들 사이에 인접성이나 유사성이 파악되는 한, 연상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해협과 인체 목 사이에 형태나 기능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해협은 문과의 연상 외에 목과의 연상도 가능한 것이다.

III. 전부요소 ‘鳴’과 ‘露’

3.1. 鳴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의 珍島關에 설치된 【명량해협과 명량대첩】의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4) ‘梁’자 지명이 灣을 뜻하는 예도 있으나, 灣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海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명량해협과 명량대첩】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와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사이의 좁은 물목으로 바다가 운다고 하여 '명량(鳴梁)', '울두목', '울돌목'이라고 불린다. 너비 325m, 깊은 곳의 수심 20m, 유속은 11.5노트(약 22km/h)에 달한다. 하루 두 차례 밀물과 썰물이 한 길 넘게 턱이 지고 거품이 일며 용솨음치는 특이한 형세는 보는 이에게 무서움마저 들게 한다. 소리 또한 요란하여 20리 밖에서도 들린다고 전한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조선 전선의 열 배가 훨씬 넘는 왜선을 격파하여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은 이곳의 자연 조건을 잘 이용한 전략의 승리였다. 당시 일본 수군은 명량해협을 통해 서해로 진출하려고 했으나, 1597년(선조 30) 9월 16일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유인 전술과 이 물목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침내 대규모의 일본 수군을 물리쳤다. 한 기록은 물목에 철쇄(鐵鎖)를 미리 설치하여 적선을 전복시켰다고 한다. 어쨌든 이 해전의 승리는 정유재란의 대세가 조선군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아, 이러한 사실들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이 기록은 '鳴'자를 본 의미에 충실하여 '울다'로 풀고 있다. 이 풀이는 설득력이 있다. 울돌목은 수로 길이가 2km이고, 너비가 325m이며, 얕은 곳의 수심이 1.9m이고, 깊은 곳의 수심이 20m이다. 또한 암초가 많고, 평균 유속은 6~7노트이며, 최대 유속이 11.5노트이다. 울돌목은 하루 두 차례 밀물과 썰물이 바뀐다. 이곳은 남해에서 서해로 빠져 나가는 북서류의 밀물과 서해에서 남해로 빠져 나가는 북동류의 썰물이 통과하는 좁은 물목이다. 이때 양쪽 해안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물이 쏟아지듯 빠른 조류를 만들어 낸다. 또한 그 소리가 요란하여 20리 밖에서도 들린다 하니, 가히 운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 때 이 조류를 활용하여 대첩으로 이끌었다.

고유어 지명 '울돌'을 '鳴梁'으로 한역한 것은 '울다'의 뜻을 잘 반영한 방법이다. 일종의訓借法에 의한 한역화이다. 여기서 '목'은 원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 즉頸部'를 뜻한다. 그러나 땅의 형태와 기능이 인체의 목과 유사한 경우에 지명에轉意되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돌'과 '목'은 의미

가 상통된다. 집 안이라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집 밖이라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이어주는 구조물이 문이라면, 목 또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울돌목’은 ‘돌’과 ‘목’의 유의중복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울돌목’이나 ‘鳴梁’은 ‘크고 사나운 물결이 우는 문’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3.2. 露

『남해지명사전』(258쪽)에는 ‘露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露梁】

서기 1900년 경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양서 죄를 짓고 귀양 오는 선비들이 이 나루를 건너와서 유배 생활을 하다 더러는 돌아가기도 하고 더러는 이곳에서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유배당하여 오는 사람들의 눈에 나룻배에 부딪히는 물방울이 이슬 방울로 보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런데서 연유하여 ‘노량’이라고 불렀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豫言性 地名[偶合地名]이 많은데 ‘노량’이라는 지명도 그 하나로, ‘하늘에 노출된 다리’가 생길 것을 선조들께서 이미 예언하여 생긴 것이라는 다른 주장도 있다.

이 기록 또한 ‘露’자를 본 의미에 충실하여 ‘이슬 방울’과 ‘露出’로 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으니, 고유어 지명을 한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긴 예이다. 고유 지명 ‘노들’에서 ‘노’의 뜻이 분명하지 않자, 단지 음만을 비는 방법으로 ‘露’로 한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音借法에 의한 한역화이다.

우리는 위에서 ‘노들’은 ‘노들’의 외전형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노들’은 ‘놀들’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치음 앞의 ‘ㄹ’ 탈락은 중세 국어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¹⁵⁾

15) 15세기 국어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치음 앞에서 ‘ㄹ’이 유지된 어형과 탈락된 어형이 공존한다. 이로 볼 때 치음 앞에서의 ‘ㄹ’ 탈락은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김정우(2004: 14~15)는 최초의 어형 '놀'을 '노르(獐)'로 보았다. '노르'는 '아'나 '울'과 같은 모음 조사를 만나면 '놀이'나 '놀을'처럼 '놀'로 변하는데, 이런 점에 착안한 설명이다. 이리하여 '놀돌'은 '노르돌'에서 온 것이요, '노르돌'은 '노루뚝좁은 뚝'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르'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형 '돌'을 만났을 때까지도 '놀'로 변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여기서 '놀'은 '너울'의 준말로 본다. '너울'은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을 뜻한다. 이 '너울'의 준말이 '놀이'고, 여기서 '큰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다'를 뜻하는 '놀하다'·'놀치다' 등의 동사가 파생된다. '梁'자 지명이 붙은 곳의 대부분은 넓은 바다로 빠져 나가는 좁은 문에 해당되기에 물결이 크고 사나운 것이 특징이다.

'노들'은 '노돌'의 와전형이요, '노돌'은 '놀돌'에서 '르'의 탈락형이며, '놀돌'의 '놀이' '너울'의 준말이라고 본다면, '놀돌'이나 '露梁'은 '크고 사나운 물결이 이는 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명량'이 밀물과 썰물이라는 조류가 내는 소리에 착안한 이름이라면, '노량'은 조류가 출렁이는 모습에 착안한 이름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속한 '노량진'도 같은 뜻이다. 이곳 또한 '노들나루'로 불리는데, '露梁津'으로 한역하여 역시 '이슬 露'로 음借하고 있다.

VI.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지명 '鳴梁'과 '露梁'의 어원을 고찰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1) 옛 문헌에는 '梁'의 새김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삼국유사』는 '梁'이 '濼과 통용됨을 말하면서 이들을 모두 '도'로 읽고 있고, 『삼국사기』에

과거에 시작된 규칙으로 추정된다.

플서리에 그옥후고(杜重 十一 44), 프서리에 곧 서르 迷路 흥리로다(榛草卽相迷)

(杜初 七 8).

는 ‘梁’이 ‘독’으로 읽혔음도 말하고 있다. 『고려사』에 보이는 ‘狹梁’은 『용비어천가』에 보이는 ‘:손·돌’인데, 이 ‘:손·돌’은 『여지도서』에는 ‘孫石項’으로,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에는 ‘孫石項’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표기상 차이는 있으나, 모두 ‘손돌목’으로 재구된다. 따라서 이들 문헌에서는 ‘梁’이 ‘돌’과 대응된다. 이는 『훈몽자회』에서의 ‘梁’의 새김 ‘·돌ㅎ’과 일치된다.

이상 여러 문헌은 ‘梁’의 새김이 ‘·돌ㅎ’이었고, 이 ‘·돌ㅎ’은 ‘도’ 또는 ‘독’과 교체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여기서 ‘梁’의 새김 중 ‘·돌ㅎ’과 ‘독’의 교체는 ‘石’의 새김 중 ‘:돌ㅎ’과 ‘독’이 교체되는 모습과 같아, 고대국어 단계에서 ‘石’의 새김과 마찬가지로, ‘梁’의 새김 또한 ‘·돌ㅎ’과 ‘독’이 교체되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남해나 서해에서 발견되는 지명 중에도 ‘梁’의 새김 ‘돌/도’와 관련된 예가 많아, 문헌에서의 ‘梁’의 새김 ‘돌/도’를 확인해 준다. ‘돌’과 관련된 지명으로, ‘손돌[狹梁]’·‘노돌[露梁]’·‘울돌목[鳴梁]’을 들 수 있다. ‘도’와 관련된 지명으로, ‘판도[鑿浦梁]’·‘전하도[見乃梁]’·‘대문도[漆川梁]’·‘웃바우도’·‘정남도’·‘청당이도’·‘설괴이도’·‘자래목도’·‘중구리도’를 들 수 있다.

(3) ‘梁’의 새김 ‘돌/도’의 의미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는 ‘施檀梁’에 대한 細註에서 ‘돌/도’의 의미를 ‘門’과 관련시키고 있다. 『漢韓大辭典』 또한 ‘梁’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 ‘門’과 관련 있는 ‘上引枋’을 들고 있는데, 『中韓大辭典』은 ‘上引枋’이 ‘門楣’, ‘過梁’, ‘梁暗’과 통용됨을 밝히고 있다.

(4) ‘돌/도’의 의미 중 하나가 ‘門’임은 지명 예에서도 발견된다. ‘露梁’과 인접한 마을에 ‘水門’이 있고, ‘漆川梁’을 달리 ‘대문도’로도 부르며, 칠천량의 한 항구가 ‘長門浦’이며, ‘鳴梁’과 인접한 면 이름이 ‘門內面’이란 사실 등은 ‘돌/도’가 ‘門’과 관련됨을 말하고 있다.

(5) ‘돌/도’가 ‘門’의 뜻에서 ‘海峽’을 뜻하는 말로 전이된 것은, 해협과 문이 형태나 기능면에서 유사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성에 의한 연상은 어떤 사물·사항·관념 등에 대해 새로운 이름이 아닌, 기존의 이름을 가

지고 명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6) '鳴梁'은 '울돌목'을 한역한 이름이다. 이곳은 서해와 남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좁은 물목으로, 양쪽 해안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조류가 바뀔 때 물의 흐름 소리가 매우 요란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부요소 '鳴'을 '운다'와 관련하여 푼 것은 설득력이 있다.

(7) '露梁'은 '노들'을 한역한 이름이다. 이곳은 진주만과 광양만·여수만을 연결해 주는 좁은 물목으로, 조류가 바뀔 때 그 너울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부요소 '노'는 '놀'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이요, 이 '놀'은 '너울'의 준말로 본다. 이런 점에서 현지의 유래담이 '노'를 '이슬 방울'이나 '露出'과 관련하여 푼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8) 이상의 논의를 통해, '鳴梁[울돌목]'은 '크고 사나운 물결이 우는 문'의 뜻 정도로 풀 수 있다. 이때 '돌'과 '목'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아, '울돌목'을 일종의 유의중복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露梁[노들]' 또한 '크고 사나운 물결이 이는 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때 '노들'은 '놀들'에서의 'ㄹ' 탈락형이고, '놀들'은 '놀돌'의 와전형으로 보인다.

인용문헌

- 巨濟文化院, 『巨濟地名總覽』, 거제: 제일출판기획사, 2004.
 경남일보, 「경남의 해안선(7) 거제(하) -미친 봄날, 파도소리가 푸르렀다-」, 2006.4.22.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中韓大辭典』, 코리아헤럴드, 1995.
 김일룡, 「統營運河에 관한 연구」, 『통영문화』 3, 통영문화원, 2002.
 김정우, 「지명 요소 '량(梁)'의 형태와 의미」, 『국제어문』 32, 국제어문학회, 2004.
 金眞植, 「'까치내'의 語源 考察」,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회, 1997.
 김진우, 『언어사전 II』, 탑출판사, 1988.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7』,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都守熙, 『百濟語 語彙 研究』, 제이앤씨, 2005.
 三千浦文化院, 『三千浦地名誌』, 대동인쇄, 1994.

- 梁柱東, 『古歌研究』, 일조각, 1983.
- 이기문, 「납천장, 손돌바람, 안동답답이」, 『새국어생활 8-3』, 국립국어연구원, 1998.
- _____,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2001.
- 이영수, 「손돌목(孫丕項) 傳說의 分析과 現場」,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 조항범 외, 『지명어원사전』, 태학사, 2005.
- 하동문화원, 『하동군지명지』, 경남인쇄소, 1999.
- 海南郡, 『마을由來誌』, 광주일보출판국, 1987.
- 洪思滿, 『國語意味論研究』, 형설출판사, 1994.
- 화전사바로알기모임, 『남해지명사전』, 문성인쇄소, 2003.
- 池上嘉彦, 『意味論』,大修館,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Etymology of the Place Names
'Myeongryang' and 'Noryang'**

Jin-sik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lace names are generally composed of first half and second half, whether the originality of those names comes from Korean or Chinese. The first half, modifying the second half, represents the naming flexibility of the name, while the second half of the name points out its directive object, which refers to a branch of the name. For example, 'Myeong' in 'Myeongryang' and 'No' in 'Noryang' represent their naming flexibility while 'Ryang', constituting the second half, points out the name's directive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tymology of place names, 'Myeongryang' and 'Noryang', by figuring out the meanings of those two elements.

In order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the second half, 'Ryang', other examples presented in the related literature have been examined. The finding indicated that 'Ryang' means 'dol', or 'do', which refers to 'moon(door)'. Furthermore, it is found out that the meaning of 'Ryang' has been transferred from 'dol' or 'do' to 'moon(door)', furthermore, to the straits. Upon looking into the origins of those names on the field, it is interpreted that 'Myeong Ryang' has been meant as a door in which huge and rough waves cry out, and 'No Ryang' has been meant as a door in which huge and rough waves rise up.

keywords: *Myeongryang*, *Noryang*, The first half, The second half, '*Ryang*' place name, *dol/do*, door, association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